

국 민 동 의 청 원 서

등록일자	2023. 8. 30.		
동의기간	2023. 9. 1. ~ 2023. 9. 20.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임세은	
제 목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p>[청원의 취지]</p> <p>조만간 열릴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이 태블릿 증거를 조작, 증거인멸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주십시오.</p> <p>[청원 내용]</p> <p>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부터, 7년 간 JTBC 보도한 제1 태블릿,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제2 태블릿 모두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p> <p>그러다 2018년 5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당시, OECD 언론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재판없이 구속 1년 간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 그 이후로도 그는 태블릿 조작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p> <p>그러다, 지난해 12월, 안진걸 민생경제연소장, 김용민 목사,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등과 함께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묶어 ‘나는 그해 겨울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발매,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p> <p>변희재 대표고문은 올해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에 3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 태블릿 조작자백을 촉구했고, 30여명의 진보와 보수인사들도 연명하여 한동훈 장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한동훈 장관 자택앞에서 두 차례 이상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p> <p>지금껏 조금만 자신을 비판하면 곧바로 고소, 고발에 압수수색을 마다치 않던 한동훈 장관은 유독 태블릿 조작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태블릿 관련 입장을 촉구해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란</p>			

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MBC 등등 유력 언론사들이 본격적으로 태블릿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법사위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 그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태블릿이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대 이슈가 된 증거물을 조작했고, 이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검찰권력을 악용, 구속 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가 반역에 가까운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이관련 수사를 정권이 장악한 검찰이나 공수처에 맡겨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즉각 국정감사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을 증인 채택, 그의 주장을 검증하여, 상황에 따라서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 법무장관을 체포,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